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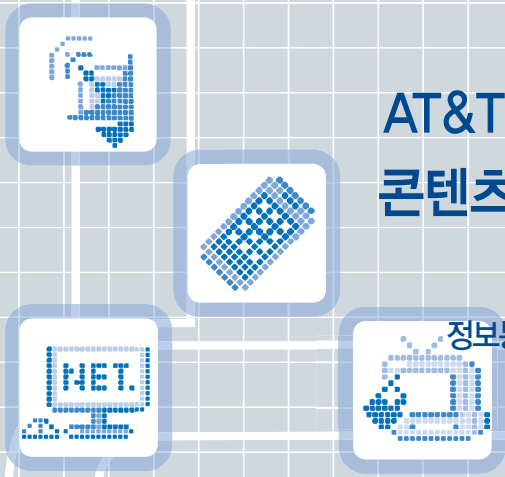
# KISDI

## Premium Report

### AT&T의 Time Warner 인수 : 콘텐츠 강화 및 OTT 대응 전략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



## Premium Report

### AT&T의 Time Warner 인수 : 콘텐츠 강화 및 OTT 대응 전략

#### 이 재 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

#### 요약문

1. 서론 .....	4
2. AT&T의 Time Warner 인수 진행 과정 .....	5
3. 미국 유료방송/OTT 시장과 M&A 동향 .....	7
4. 미 법무성(DOJ)과 법원의 판단 내용 .....	12
5. AT&T의 Time Warner 인수의 의미 .....	16
참고문헌 .....	18

## AT&T의 Time Warner 인수 : 콘텐츠 강화 및 OTT 대응 전략

### 요약문

미 법무성(DOJ)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 사건 중 하나로 보았던 AT&T의 Time Warner 인수가 완료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AT&T의 Time Warner 인수 진행 경과, 미국 유료방송 시장 및 관련된 M&A 동향, 규제 당국 및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번 인수의 의미를 반추해 보았다.

법무성(DOJ)은 대형 미디어 플랫폼-콘텐츠 결합이 협상력을 크게 증가시켜 경쟁사업자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Clayton Act 제7조를 근거로 인수 불허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법무성의 주장이 이론에 치우쳤고 실질적으로 주장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AT&T의 Time Warner인수를 허용하였다.

이번 인수는 첫째로 플랫폼사업자(통신, 유료방송)의 전형적인 콘텐츠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인수를 통하여 AT&T는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를 확보했고, Time Warner는 자사 콘텐츠의 안정적인 유통 경로(방송·통신 네트워크)를 보장받게 되었다. 둘째로 이번 인수는 최근 미디어 시장의 큰 트렌드이자 기존 방송사의 위협으로 자리 잡은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AT&T는 이번 인수를 통하여 당분간 시장에서 생존할 수

###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

\*jaelee@kisdire.kr, 043-531-4091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있는 여력을 확보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 (OTT 동영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OTT는 기존 방송사업자에게는 극복 대상인 동시에 확보해야만 하는 필수적 비즈니스가 되어가고 있다.

---

## 1. 서론

- AT&T의 1천억 달러 규모의 Time Warner 인수가 승인됨<sup>1)</sup>
  - 미 법무부의 이번 사건 소장(2017.11)에 따르면,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에 속한다고 밝힘<sup>2)</sup>
  - 대형 통신사업자이자 유료방송사업자이기도 한 AT&T가 미디어 콘텐츠 대기업 Time Warner 인수를 발표하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음
  -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사건이 현대 미디어 비즈니스의 가장 명확한 트렌드를 조명하고 있다고 언급 : 기술·통신 대기업이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던 고수익·인기 콘텐츠를 확보
- ※ “The potential merger highlights one of the most definitive trends of the modern media business: the push from tech and telecommunications giants to control the lucrative, popular content they once passively supplied.”<sup>3)</sup>
- 본 보고서에서는 이 번 인수 사안의 진행 경과, 미국 유료방송시장 및 이번 인수와 관련된 M&A 동향, 규제 당국(DOJ) 및 법원의 입장을 살펴본 다음, 이번 인수의 의미를 반추해보고자 함

1) New York Times(2018.6.12.)에는 854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보도되었으나, 다른 보도에는 부채를 포함한 규모가 1,080억 달러로 알려져 있음(TechCrunch, 2018.6.13.)

2) US District Court of the D.C.(2017.11)

3) Washington Post(2016.12.21.)

## 2. AT&T의 Time Warner 인수 진행 과정

- 2016. 10. AT&T가 Time Warner 인수 계획을 발표
  - AT&T/DirecTV는 IPTV, 위성방송,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서비스 및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이자 유료방송사업자
    - ※ 2018년 1분기 현재 가입자 수는 AT&T U-verse와 DirecTV(2015년 인수)를 합쳐 약 2,400만(미국 내 1위), DirecTV Now 약 150만, 2017년 말 현재 초고속인터넷 약 1,600만(미국 내 3위), 이동통신 약 1억 4000만(미국 내 2위)을 보유<sup>4)</sup>
  - Time Warner(WarnerMedia)는<sup>5)</sup> Turner(TBS, TCM, TNT, CNN 등 유료방송 채널), HBO(유료 채널), Warner Bros. Entertainment(영화/TV프로그램 제작·배급사, DC Entertainment) 등을 보유한 미디어 기업
    - ※ MLB, NBA, NCAA 등 중요한 라이브 스포츠 방영권을 장기계약으로 보유
    - ※ HBO Go, Max Go 등의 온라인/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Turner를 통하여 Hulu의 지분 10%를 보유
- 인수 발표 이후 DOJ(미 법무성)가 인수 사안을 1년 이상 심사
  - 2017. 1. FCC는 통신·방송 라이선스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수 심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힘
    - ※ Warner Bros.가 the CW(지상파방송사)의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지만 Time Warner가 직접 지상파방송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음
- 2017. 11. DOJ가 Clayton Act 제7조 위반을 근거로 연방 지방법원에 AT&T의 Time Warner인수를 금지해 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

4) 미디어 서비스 가입자 수는 SNL Kagan(2018.6), 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OVUM(2018.5a) 참조

5) 합병 종료 후 Time Warner Inc.는 Warner Media, LLC로 사명 변경

- 2018. 6. 12. 법원(District Court of the D.C.)은 DOJ의 인수 금지 요청을 거부
  - 법원 요청에 따라, DOJ가 인수 유예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함
  - 다만, 원칙적으로 인수 마무리 후에도 DOJ의 항소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님
- 2018. 6. 14. AT&T의 Time Warner 인수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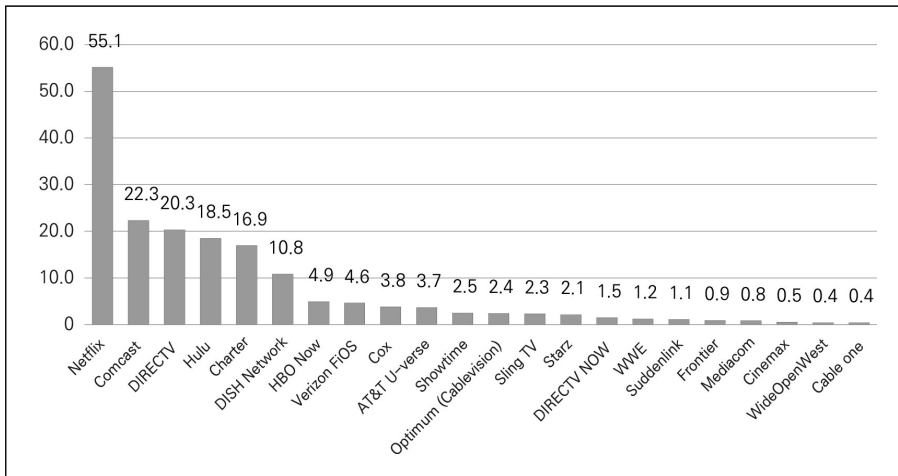
### 3. 미국 유료방송/OTT 시장과 M&A 동향

#### ◆ 미국 유료방송 및 OTT 서비스 동향

- 미국 최대의 ‘가입형’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Netflix로 2018년 1분기 현재 5,500만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2위 사업자를 2배 이상 앞지른 상황(SNL Kagan, 2018.6)
- 여기서 ‘가입형’ 동영상 서비스라 함은 기존의 유료방송서비스(MVPD)와 OTT서비스를 말하는데, OTT서비스는 다시 virtual MVPD와 SVOD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음

[그림 1] 미국 가입형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 수 현황(2018년 1분기)

(단위: 백만 가입자)



주: 1) 가입형 동영상 서비스 : 유료방송(MVPD), OTT(virtual MVPD, SVOD) 포함

2) Amazon Prime 가입자는 2017년 4분기 현재 55.4백만 추산했으나, 이것이 모두 Amazon Prime Video 이용자인지는 불확실

자료: SNL Kagan(2018.6.) 참조



- MVPD(전통적 MVPD)
  - 각 사업자가 보유한 망(케이블망, 통신망, 위성)을 통하여 다채널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리가 아는 전형적 유료방송서비스에 해당
    - ※ AT&T U-verse(IPTV), DirecTV(위성방송), Comcast(케이블TV), Charter(케이블TV), DISH(위성방송) 등이 대표적 MVPD 서비스
- virtual MVPD(가상 MVPD)
  - 전통적 MVPD와는 달리 skinny bundle(소형 패키지)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셋탑과 장기계약이 없는 것이 특징인 OTT서비스
    - ※ skinny bundle : 전통적인 MVPD들이 제공하는 채널 패키지 상품보다 적은 수의 채널로 구성된 상품을 의미
  - 인터넷 망을 통하여, 주로 linear 또는 live streaming 형태로 다채널 방송을 제공
    - ※ Hulu, Sling TV(DISH), DirecTV Now 등
- SVOD(Subscription-Video-on-Demand)
  - 인터넷 망을 통하여, 주로 video-on-demand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 ※ Netflix, Amazon Prime 등
- Cord-Cutting 및 Cord-Shaving 동향
  - 전통적 MVPD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고 OTT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cord-cutting이라고 하며, skinny bundle을 제공하는 virtual MVPD로 전환하는 경우를 cord-shaving이라고 함

- 미국 내에서는 OTT 서비스의 성장 속도는 빠른 데에 비해, 전통적 MVPD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cord-cutting 혹은 cord-shaving의 영향으로 불 소지가 큰 상황임

※ 2018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가입자 수가 Netflix(11.6%), Hulu(51.6%), HBO Now(104.2%), Showtime(58.8%) 등은 증가한 것에 비해, Comcast(-1.3%), DirecTV (-3.5%), Charter(-1.5%), DISH(-8.3%) 등은 감소함(SNL Kagan, 2018.6.)

- OTT서비스가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로는 뛰어난 가격경쟁력을 으뜸으로 칠 수 있겠지만, 대량의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유연한 전략이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이 크게 기여

#### ◆ 이번 인수와 관련된 미국 미디어기업 M&A

- Comcast의 NBCUniversal 인수(2011) : 플랫폼 + 콘텐츠
  - 2011년에 인수가 완료될 당시만 하여도, 뉴미디어라고 불리던 Comcast(케이블TV)가 올드 미디어(지상파방송사)를 인수함으로써, 시장의 흐름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 이후 시장은 다시 변화하여, NBCUniversal을 통해 Hulu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Comcast가 Fox(Hulu 지분 30%) 인수전에 참여한 것은 '새로운 뉴미디어(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갈증으로 풀이됨
- AT&T의 DirecTV 인수(2015) : 플랫폼 + 플랫폼 + (온라인 플랫폼)
  - 이번 AT&T-Time Warner 소송 과정에서 AT&T 관계자의 언급에 따르면, 당시에 전망이 밝지 않았던 위성방송(DirecTV)을 인수했던 것은 향후

OTT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가입자 기반의 확보가 목적

- 이후 실제로 AT&T는 2016년에 온라인 플랫폼 DirecTV Now를 출시했으며, 2018년 1분기 가입자 수는 약 150만 수준
- Disney의 Fox 인수 시도(2018) : 콘텐츠 + 콘텐츠 + 온라인 플랫폼
  - Disney가 Fox가 보유한 영화 및 TV프로그램 제작 스튜디오, 오락 채널, 인도·유럽의 미디어기업 지분 등을 인수하기로 함
    - ※ Fox의 지상파방송, News 및 스포츠 채널 등은 별도의 'New Fox' 로 잔존할 예정인데, 이는 Disney와 Fox가 FCC 규제를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라이선스가 거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를 추진했다는 평가
  - Comcast가 Fox 인수전에 참여했으나,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Disney가 승리한 것으로 보임
    - ※ DOJ가 Disney의 Fox 인수를 조건부(인수 후 22개의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 매각 승인했고,<sup>6)</sup> Disney가 이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7월말 주주총회를 통해 인수를 결정할 예정
  - Disney의 Fox 인수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Hulu의 지분인데, 양사가 각각 3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합병이 종결되면 Disney는 Hulu 지분 60% 갖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할 수 있게 됨
    - ※ 합병 이후 Disney-Fox의 강력한 콘텐츠와 함께 미국 내 3위 OTT 플랫폼(Hulu)을 통제 하에 둬으로써,<sup>7)</sup> 장치 Netflix나 Amazon Prime에 필적하는 OTT 서비스를 발전시키려는 계획이라는 추측

6) DOJ는 Disney가 보유한 전국 스포츠 네트워크(ESPN 등)와 Fox의 지역스포츠 네트워크(Regional Sports Network)를 한 회사가 동시에 보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우려

7) 이외는 별도로 Disney는 ESPN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과 Disney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설립을 발표하였으며, 자사 콘텐츠를 Netflix에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바 있음

- 최근의 미국내 미디어 기업들의 합병은 수직결합이든 수평결합이든 OTT의 성장과 cord-cutting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보임
  - 위축되는 전통적 MVPD(플랫폼) 입장에서 강력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하는 전략을 펼치거나, 온라인 플랫폼(OTT 동영상 서비스)을 강화하여 미래를 준비
  - Disney와 Comcast의 Fox 인수전은 결국 미국 내 3위 OTT 플랫폼, Hulu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함

## 4. 미 법무성(DOJ)과 법원의 판단 내용

### ◆ OTT 동영상서비스를 MVPD의 실질적 경쟁압력으로 간주

- 정부/법원 모두 전통적 MVPD 시장 내 경쟁 상황만 보지 않고 OTT(virtual MVPD, SVOD)까지 포함한 시장 상황을 고려<sup>8)</sup>
  - DOJ와 법원은 상세한 부분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이 DOJ의 시장획정을 수용
    - ※ AT&T/DirecTV가 이번 인수는 FANG(Facebook, Amazon, Netflix, Google/ YouTube) 까지 포함한 OTT 시장의 경쟁까지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생존 전략이었다는 주장에 법원이 동의했다는 평가도 존재
- 기본적으로 수평결합이 아닌 수직결합 사안이었던 이번 인수 심사에서 시장획정 자체는 핵심적인 이슈는 아니었음
  - 다만, virtual MVPD, SVOD를 포함하는 OTT를 전통적인 유료 방송사업자(MVPD)의 경쟁압력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번 수직결합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유리했던 것만은 사실

### ◆ 플랫폼-콘텐츠 수직결합에 대해 규제당국과 법원의 이견

- 과거 규제 당국이 합병 조건을 부가하더라도 대체로 허용해왔던 수직결합 사안에 대해 DOJ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 2011년 성사된 Comcast-NBCUniversal의 대형 플랫폼-콘텐츠

8) District Court of the D.C.(2018.6) Analysis 부분의 I. Market Definition 참조

사업자 수직합병도 경쟁사업자에 대한 봉쇄 foreclosure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허용

※ 인수 허용 조건 : NBCUniversal 콘텐츠의 차별 없는 공급, 콘텐츠사업자들과 경쟁 MVPD간의 협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건 부과 금지 등

● DOJ는 이번 AT&T-Time Warner 건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상당한 협상력 상승이 이루어져 3가지 측면에서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Clayton법 제7조 위반을 근거로 한 불허 요구 소송<sup>9)</sup>

- 합병 후 Time Warner 콘텐츠 대가를 인상하여 경쟁 MVPD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됨으로써 경쟁을 제한

※ 법원은 이를 increased-leverage theory of harm라 언급

- 마찬가지로 논리로, 합병 후 virtual MVPD가 지불하는 콘텐츠 대가를 인상하고, 이것이 다시 이용자에게 전가됨으로써 경쟁을 제한

※ AT&T-Time Warner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사와 마찬가지로 virtual MVPD를 경쟁자로 간주하는 Comcast-NBCUniversal과의 협력을 통한 경쟁제한 가능성도 제기

※ virtual MVPD의 이익을 저해하여 '혁신적인 온라인플랫폼'의 성장을 지연 (이용자 이익 저해로 이어짐)시킴으로써 경쟁을 감소시키는 측면도 언급함

- 경쟁사업자들이 프리미엄 채널인 HBO를 이용한 프로모션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경쟁을 제한

※ 경쟁사업자들은 HBO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잠재적인 MVPD 가입자 혹은 AT&T/DirectTV의 가입자를 빼앗으려는 것이므로, 합병 이후 이를 막을 유인이 존재한다는 주장

※ 법원은 이를 promotion-withholding theory라고 언급

9) District Court of the D.C.(2018.6) Analysis 부분의 III, IV, V 참조

- 법원은 DOJ의 경쟁제한 우려들은 단지 이론에 그쳤고 자료를 통해서나 전문가 증언을 통해서도 실증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번 인수를 허용토록 함<sup>10)</sup>
  - 합병 전 플랫폼의 입장과는 달리, 합병 후에는 WarnerMedia 콘텐츠를 가능한 한 많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합병한 기업에 유리하므로 경쟁플랫폼을 차별할 유인은 크지 않다는 것
  - 특히 OTT는 모바일에서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AT&T 입장에서는 OTT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자사 데이터 수입에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
    - ※ Comcast와 AT&T가 협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이러한 이동통신 보유 여부에서 입장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경쟁하던 사업자들이 갑자기 협력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반대 주장도 제기됨
  - 광고가 없어 수신료 배분이 절대적 수입원인 HBO입장에서 MVPD들이 진행하는 프로모션은 대단히 중요할 수 있으므로, 합병한 기업이 HBO 프로모션을 금지할 유인이 크지 않음
    - ※ MVPD 입장에서는 HBO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프로모션 수단은 아니라는 증언들이 제시됨(HBO의 지원 때문에 프로모션을 한다는 사업자도 있고 Netflix 프로모션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사업자도 있었음)
- 전통적으로 수직결합은 반경쟁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므로, DOJ의 부정적 판단에 대한 법원의 이견은 특별할 것은 없는 상황이었음
  - 수직결합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그리고 그 비교 형량에 대한

10) District Court of the D.C.(2018.6) Analysis 부분의 III, IV, V 참조

논쟁은 Harvard 학파, Chicago 학파, post-Chicago학파의 오랜 논쟁 주제였으며, 그만큼 개별 사안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법원은 DOJ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은 ‘이론’에 불과하였고 그것을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AT&T의 Time Warner 인수를 허용토록 함

※ DOJ는 이번 AT&T-Time Warner의 수직결합으로 효율성이 증가하여 그 이용자에게 연간 3억 5,200만 달러의 이득(요금 감소)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지만, 정작에 더 크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부정적 효과를 설득력 있게 규명하지 못함



## 5. AT&T의 Time Warner 인수의 의미

### ◆ 콘텐츠 경쟁력 확보 전략

- 무엇보다 AT&T의 Time Warner 인수는 플랫폼사업자(통신, 유료 방송)가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여 생존하려는 전형적 전략으로 해석됨
  - Time Warner는 AT&T에게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와 함께 광고 인벤토리를 제공해줌
  - 최근의 여러 인수합병과 마찬가지로, AT&T의 Time Warner 인수 역시 여전히 콘텐츠는 미디어 비즈니스의 핵심 경쟁력임을 확인해 준 것
- Time Warner 입장에서는 AT&T로부터 콘텐츠의 안정적 전송경로 겸 유통경로(위성방송/IPTV,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향후에는 5G 네트워크)를 보장받게 됨

### ◆ OTT 경쟁압력에 대한 대응 전략

- Netflix로 대표되는 OTT의 성장은 미디어시장 인수합병을 촉발하고 있고 그것이 큰 트렌드를 형성한 것으로 보임
  - cord-cutting(전통적 MVPD의 위축과 OTT 확산) 상황은 전통적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는 큰 위협일 수밖에 없음

- AT&T의 Time Warner 인수도 단순히 전형적 플랫폼-콘텐츠수직결합 전략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커다란 경쟁 압력으로 등장한 OTT 플랫폼에 대한 대응 전략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동일한 시장상황 판단에 따라 DOJ와 법원도 이번 사안을 전통적인 유료방송시장 내의 현상으로 좁혀서 보고 있지 않음
  - 특히, live 방송을 하지 않는 SVOD(Netflix 등)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Time Warner가 장기계약으로 보유한 라이브 스포츠 방영권과 그 스포츠채널들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을 것임
    - ※ Time Warner가 보유한 프리미엄 스포츠 방영권: MLB(2021년까지), NBA (2025년까지), NCAA March Madness(2032년까지)
  - AT&T는 이번 합병을 통하여 당분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
    - ※ AT&T/DirectV가 보유한 DirectV Now, Time Warner가 보유한 HBO Go/Now, Max Go 등은 향후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큰 자산이 될 것
  - Time Warner의 콘텐츠 경쟁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도 전통적 유료방송플랫폼이 제공하는 고객 접점 수준 외에 온라인플랫폼만이 제공할 수 있는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의 확보·활용이 필수적
- Disney-Fox 등 다른 M&A 동향까지 고려한다면 미국 미디어시장 중심부에는 OTT가 자리하고 있고, OTT 플랫폼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 중에는 이용 정보의 수집·활용이라는 강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 OTT 동영상 서비스는 기존 방송사업자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필수적 비즈니스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임

---

## 참 고 문 헌

---

### [국내문헌]

- 강준석 (2010.5), Comcast와 NBC Universal 합병의 배경과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10-11
- 박병선 (2014.4), 미국 케이블TV 시장의 재편과 시사점: 컴캐스트와 타임워너 케이블 합병을 중심으로, KISDI 정보통신방송정책 26(6)
- 한중희 (2017.4), 수직결합의 봉쇄효과 평가를 위한 경제분석 방법론, 법경제학연구 14(1)

### [해외문헌]

- CNBC (2018.6.14.), AT&T Closes Time Warner Deal, but DOJ Could Still Appeal, <https://www.cnn.com/2018/06/14/doj-will-not-see-a-stay-in-att-merger.html>
- New York Times (2018.6.12.), AT&T Wins Approval for \$85.4 Billion Time Warner Deal in Defeat for Justice Dept. <https://www.nytimes.com/2018/06/12/business/dealbook/att-time-warner-ruling-antitrust-case.html>
- New York Times (2018.6.13.), Why the AT&T-Time Warner Merger Is a Win for Consumers, <https://www.nytimes.com/2018/06/13/opinion/att-time-warner-merger-good-consumers-antitrust.html>
- OVUM (2018.5a), Analysis of 4Q17 Telecoms and Media Results in the US Market

- OVUM (2018.5b), US TV Update – Traditional TV Sector Consolidates to Take on the Digital Giants
- SNL Kagan (2018.6.), Q1'18 Top US Video Provider Rankings, Economics of Internet
- TechCrunch (2018.6.13.), Court Approves Merger of AT&T and Time Warner, <https://techcrunch.com/2018/06/12/att-time-warner-approved/>
- US District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2017.11), United States of America, Plaintiff, v. AT&T Inc., DirecTV Group Holdings, LLC., and Time Warner Inc., Defendants–Complaint, Case 1:17-cv-02511 Document 1
- US District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2018.6), United States of America, Plaintiff, v. AT&T INC., et al., Defendants – Memorandum Opinion, Civil Case No. 17–2511 (RJL)
- Washington Post (2016.12.21.), Why AT&T's Merger with Time Warner is such a Huge Deal,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switch/wp/2016/10/21/att-could-soon-own-almost-everything-from-hbo-to-cnn-to-dc-comics/?noredirect=on&utm\\_term=.64cad9d45872](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switch/wp/2016/10/21/att-could-soon-own-almost-everything-from-hbo-to-cnn-to-dc-comics/?noredirect=on&utm_term=.64cad9d45872)
- William P. Rogerson (2017.11), Economic Theories of Harm Raised by the Proposed Comcast/TWC Transaction (2015), forthcoming in *The Antitrust Revolution*, 7th Edition